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김진호 (단국대학교 부교수)

당(黨)-군대(軍)-국가(政) 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에서 국가의 주요 국내외정책은 공산당의 핵심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서기처의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된다.

이에 중국의 당·군·정의 최고지도부 인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공산당과 정부의 이중구조인 사회주의 중국)과 지도자 후보 그룹의 비제도적인 측면(개인적 가족관계와 성장·발전 환경, 개인의 당 및 정부에서의 직책과 그 소속 계파 간 연합 및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비제도적인 측면이 때론 제도적인 측면보다 더 중시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많은 인재가 각자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엘리트 그룹에게 모두 중국의 당·군대·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당·군·정의 핵심지도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에서 핵심인력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배경, 개인의 학업·직책 배경,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영향력 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제도권 안(体制内)과 제도권 밖(体制外)은 엘리트들이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없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중국의 최고지도부 인선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적용되어 온 제도적 규정인 연령제한(새로운 직위를 맡을 시기에 68세를 초과할 수 없고, 이에 2012년에 64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규정은 경우에 따라 공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도 있을 수 있음)과 2기 연임은 가능하나 2기 이상의 동일 직위 유지는 불가능한 당내 체제유지를 위한 당내에서의 합의점 외에도 개인과 그룹의 네트워크, 중국 인민들이 보는 지도자 그룹 후보자의 이미지, 도덕성, 담당 분야의 전문성, 성급 정부에서의 지도 경험, 대학원 이상의 학력, 복무 지역과 담당 영역에서의 평가, 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및 체제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로 그룹의 지지, 그리고 지도부 내의 전체적인 인적 밸런스 등이 새 지도자와 지도자 그룹 인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며, 그 배경은 보수적이고 엄밀한 공산당 내부 정치체제 및 지도자 그룹 간 상호견제 기능이다. 이것을 ‘당내 민주(공산당 내에서의 경쟁·견제 및 화합을 통한 조화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당내 민주’는 공산당의 조직 관리와 국가 경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사회 전체가 개방된 서구의 민주 정치체제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국가 지도자 그룹은 선택된 집단 안에서 엄밀한 점검과 경쟁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다.

현재 2012년 예정된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정치 전반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5세대 지도부 역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검증되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서기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제17차 당 대회 혹은 2010년 현재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204명) 내지는 후보위원(166명), 장관급(중앙부처 장(長)이나 성급 당서기나 성장)의 지위에 있어야 제5세대 지도자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나 최근의 ‘충청사태’ 결과와 같은 일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새로운 중국 공산당 예비 지도자 그룹을 일반적으로 공청당(共靑團), 태자당(太子黨), 상해방(上海幫)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지도체제의 권력투쟁으로 새 지도부를 점쳐보기도 하고, 혹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통해 후보군들의 경쟁을 분석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 그룹 안에는 이미 더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기본적 배경으로 그 사람의 발탁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은 정확할 수 없기에, 위에서 언급한 인사에 관계되는 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입체적인 종합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외부 연구자들의 새 지도부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가을 이후에나 과거와 같이 원로 그룹과 현 지도부의 심사숙고한 결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도 금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새 지도부 그룹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이 현 단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자 중 많은 지도자가 문화대혁명 때 하방(下放)되어 고생한 ‘농공병대학(農工兵大學)’ 출신이거나, 문화혁명 후 다시 시행된 대학입시의 77·78학번의 엘리트들로서, 이들은 중국 인민들의 신망을 얻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새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산적된 내외적 문제를 동시에 많이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지도하는 앞으로의 10년에는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5. 4) 발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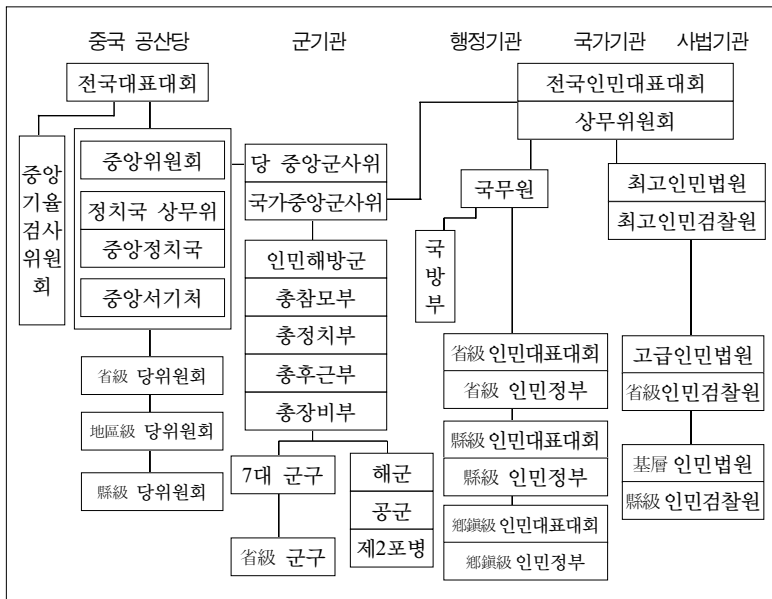
1. 중국 정치의 내부 결정구조와 지도부 구성의 블랙박스

목 차

가. 공산당 조직과 체계

- 중국 공산당은 창당(1921년 상해) 이후 군대(1927년 난창)를 만들고 국가(1949년 북경)를 건설했음.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당과 군대,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음. 즉, 서구의 입장과 같은 의미로 국가를 보기보다는 공산당이 건립한 국가로 중국을 보고 있는 측면이 많음. 즉, 중국은 공산당과 국가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로 볼 수 있음.

(그림 1) 중국의 당-국가체제



자료: 서진영.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서울: 폴리테이아, 20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중국의 '제5~6세대' 지도부 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신중호·김흥규·황재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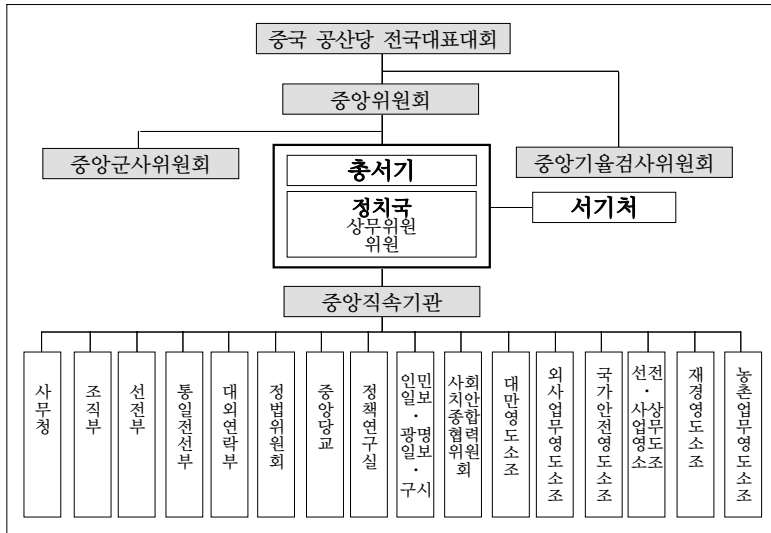
- 중국 공산당, 군(軍)기관 및 정부기관을 보면 중국은 공산당, 군대, 그리고 국가행정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1. 중국 정치의 내부 결정구조와 지도부 구성의 블랙박스
 - 가. 공산당 조직과 체계
 - 나. 군대조직
 - 다. 국가조직
 - 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와 의사결정 방법
2. 중국 역대 지도자와 새 지도자의 관계
 - 가. 중국 지도자별 주장과 변화
 - 나. 주목해야 할 중국의 엘리트 77, 78, 79학번 세대
 - 다. 후진타오 시대의 특징
 - 라. 15, 16, 17대 공산당 지도자 그룹
 - 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유력 지도자 그룹과 예상
 - 바.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지도자 그룹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조직을 통해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공산당 조직부임을
알 수 있음**

-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조직을 통해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공산당 조직부이며, 중앙과 지방의 당 조직이나 각 사업단위 혹은 학교나 대학에서도 공산당 조직부의 역할은 막강하며 인사권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인사권-권력관계를 쉽게 알 수 있음.
 - “열 손가락이 아무리 강해도 한 주먹만 못하다(十指再强不如拳頭有力).”는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의 말은 흠어진 모래알은 힘이 없고 오직 강철같이 단단한 조직만이 중국을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로 중국 공산당은 흔히 3P를 장악해 국가를 통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3P는 인사(Personnel), 선전(Propaganda),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을 말하며, 이 중 중국 공산당 전체의 인사권을 장악한 곳이 공산당 중앙조직부임. 당내 서열은 당서기, 부서기, 조직부장, 선전부장 순(順)으로 되어 있음. 중국 공산당 조직부는 당이 대장정을 마치고 옌안(延安)에 정착한 1937년 탄생했는데, 마오쩌둥(毛澤東)은 그 속에 숨어 있을 국민당 첩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련의 당 조직국에서 착안하였음. 그러나 중국 공산당 설립과정과 국가 내에서 공산당을 통한 통치는 1인 지도체제인 마오쩌둥의 중국적 주요 사고의 기반이었던 중국 역사서인 ‘전국책’과 ‘손자병법’ 등 중국 전국(全國)시기 열국(列國) 통치방법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중국 내 당내 견제나 경쟁 혹은 숙적 제거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치(人治)에 의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음.
 - 마오쩌둥은 공산당을 장악하기 위해 심복들로 조직부를 채웠고, 당안(檔案)으로 불리는 중국식 인사파일을 당원들 자신이 끊임없이 쓰게 했고, 공산당 조직부는 바로 이 당안을 장악함으로써 조직을 장악하였음. 누출된 중국의 1998년판 당안 리스트에 따르면 중앙 직속기구, 기율검사위원회(紀律檢查委員會), 중앙 국가기관, 사회단체, 지방 당정기관, 국유기업, 은행, 대학, 기타 등 총 9개 분야의 372개 단위가 당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인사파일은 중앙조직부가 관리하며 개인은 자신의 파일을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임.
 - 예를 들어 중국 대학에서 공산당 당서기는 조직부를 통해 당원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까지 감독하는데, 이것은 당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동시에 교육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일반적으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모든 조직에서는 인사에 관한 업무는 반드시 조직부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중국 공산당 조직도



자료: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계 및 동향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3에서 재인용

- 중국 공산당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며,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사회 전반을 지배할 수 있음.
 - 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됨. 일단 이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원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것이 관례임.
 - 즉, 중국 정치의 핵심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나 더 나아가 9명의 상무위원에 있는 것으로, 지도자 그룹인 이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심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금년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도 예외는 아님.

중국 공산당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며,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1)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기관으로 비상시 조기 소집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됨. 본 대회는 중앙위원회,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하며, 당헌(黨章)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중앙고문위원회·중앙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기관으로 5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됨. 중국의 지도부 결정도 전국대표대회 시기에 현 지도부와 원로 그룹들에 의해 신중하게 선정되며 상황을 관찰한 후 최종 결정하고 있음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함.

- 중국의 지도부 결정도 전국대표대회 시기에 현 지도부와 원로 그룹들에 의해 신중하게 선정되며 상황을 관찰한 후 최종 결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국가 부주석이 주석으로 부총리가 총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군사위 주석은 국가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물려주고 나서도 조금 늦게 물려주는 관례가 생겼음.
-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지만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보통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대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기 또한 1~2주에 불과함.
-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7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2,217명이 선출되었음. 대표는 중앙 당 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하며, 기능은 당의 중요 문제를 토의 및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함.

2)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전국대표대회와 더불어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함.
 -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들어가면 국가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핵심은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임. 최근에 나타난 일부 총칭시 관련 사건보도도 결국은 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서 촉발됐을 가능성이 큼. 현재 9명인 정치국 상무위원도 18대 당대회에서는 7명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음.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며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개최함.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경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되며 그 수는 대체로 300명 내외임.
 - 중앙위원회는 총서기·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중앙위원회 서기를 선출하는 일을 하며, 당 중앙군사위 구성원도 선출함. 아울러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서 내정된 정책이나 중앙 기구의 인사 변동사항을 형식적으로 발의·승인 또는 비준하는 업무도 함.
 - 이런 중앙위원회는 중앙·지방의 당과 국가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층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음. 일반적으로 중국의 당 간부는 국가의 간부로 볼 수 있으나 일부 국가의 간부 중에는 공산당이 아닌 다른 조직(8개의 민주당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직도 모두 공산당의 지도를 받기에 중국은 결국 1당제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공산당 지도자 그룹의 평균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연해 개방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과 경제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 관료들의 중앙 진출이 현저해지고 있는 추세임.

3)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그뿐만 아니라 당(黨)·국가(國家)·군(軍)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한 권력의 핵심기구임.
-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국 중국의 고급 간부들의 인사권을 가진 공산당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치국 위원은 20명의 정(正)위원과 2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명의 정위원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주석이나 총리는 9명의 상무위원에 포함되어 있음.

4)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 1980년 2월 제11기 5중전회(中全會)에서 부활된 기구로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지도로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로서 정책결정기구인 아닌 행정기구임.
- 중앙서기처의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명을 거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됨.
-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무기구로써, 중앙서기처의 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함. 중앙서기처는 2010년 현재 중앙정치국원이면서 중앙서기처 서기인 6명(시진핑(習近平), 류윈산(劉雲山), 리위안차오(李源朝), 허용(何勇), 링지화(令計妤), 왕후닝(王滄寧))이 총서기인 후진타오(胡錦濤)의 지휘를 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전국대표대회와 더불어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함

5)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총서기(總書記)

- 총서기직은 여러 차례의 폐지와 부활을 거듭한 후 1982년 제12기 전

중앙군사위원회의**주요 업무는****인민해방군의 조직과****활동을 통제하고,****인민해방군****총정치부(總政治部)를****통해 군에 있어서 당의****정치활동을 관리함.****군에 정치활동이****있다는 것은 구소련과****같이 대만 국민당****군대와 중국 공산당****군대에 공통으로 있는****특징이며 군사위****주석이 되어야 중국****군대의 총 통솔권자가****되는 것임**

국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당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총서기가 당의 최고지도자가 되었음.

-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함으로써 당을 운영하는 핵심적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는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및 군사위 주석을 겸임하여야 명실상부한 당(黨)·군(軍)·정(政)을 아우르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음. 즉, 지도자란 ‘당·군·정’을 동시에 영도하는 수장(首長)을 의미함.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

-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지도로 활동하며 임기는 5년이며, 준(準) 독립적인 지방조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원의 부패와 비행을 척결하는 등 당 기강(黨紀綱)과 당풍(黨風)을 관리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의실행 사항을 점검함.
- 서기·부서기는 기율검사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이 승인하며, 위원회 인원은 108명 정도임.
- 정부에 검찰원이 있듯이 공산당 당원 관련해 모든 문제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감시와 조사를 하기에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구임.

7)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을 포함한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 주요 업무는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하고,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를 통해 군에 있어서 당의 정치활동을 관리함. 군에 정치활동이 있다는 것은 구소련과 같이 대만 국민당 군대와 중국 공산당 군대에 공통으로 있는 특징임.
- 마오쩌둥이 당 중앙위 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사망으로 내놓은 후 화궈핑(華國峰)이 승계했고, 이후 1981년 6월 제11기 6중전회(中全會)에서는 덩샤오핑이 주석으로 선출됐음. 현재는 장쩌민에 이어 국가주석인 후진타오가 주석으로 있음.
- 군사위 주석이 되어야 중국 군대의 총 통솔권자가 되는 것으로, 최근 상황을 보면 충칭 군사정변 등의 예를 드는 것으로 보아 후진타오도 군사위 주석은 몇 년 후에 넘겨줄 수 있음. 이것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물려준 후라도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8) 지방조직(地方組織)

- 당의 지방조직은 각급 지방행정단위를 기초로 당대표회의와 당위원회가 구성돼 있음. 이들의 기능과 양자 간의 관계는 중앙과 같음.
- 성·자치구(自治區)·직할시·구(區)에 설치되어 있는 시와 자치주(自治州)의 당 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며, 현(縣)·자치현(自治縣)·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와 자치구의 당 대표회의는 3년에 한 번씩 소집됨.
- 당 지방대표대회는 당 지방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문제에 관하여 토론 및 결의를 함. 또한 동급 지방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하며, 동급 지방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고문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선거를 함.
- 당 지방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당 지방대표대회 서기·부서기를 선출하여 상급의 당 위원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함.
- 당 지방위원회는 당의 조직과 통제, 농업·공업·재정 등의 경제활동, 군중 동원 및 정책 개발·연구 등의 분야에서 감독과 지시를 행함.
- 성·자치구·직할시·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와 자치주의 당 위원회는 임기가 5년이고, 현·자치현이나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와 시 직할구의 당 위원회는 임기가 3년임.
- 당 지방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처럼 지방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동급 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음. 상급 지방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하급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산당은 지방의 기층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와 같은 조직을 근거로 당에 의한 군대 및 국가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즉, 공산당에 의한 ‘당내 민주(통치)’의 구조가 중국 전체 통치의 기본으로, 이것이 서구에서 주장하는 상향식 민주와 만민 평등과는 다른 중국식 평등과 하향식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도 중국식 민주와 평등에 기초한 국가행정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행정체계의 민주화가 당내 민주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중국의 국가 상황을 중국적 특수성으로 보고 중국에 맞는 민주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의 국가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했지만, 당과 군대 및 국가행정의 권력 집중화가 서구적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체제의 차이가 있음.

공산당은 지방의 기층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와 같은 조직을 근거로 당에 의한 군대 및 국가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즉, 공산당에 의한 ‘당내 민주(통치)’의 구조가 중국 전체 통치의 기본으로, 이것이 서구에서 주장하는 상향식 민주와 만민 평등과는 다른 중국식 평등과 하향식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림 3〉 중국 공산당 조직구조와 당원 현황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원이 존재하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변화만이 군대와 국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당·군·정의 유기적 관계에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가 중국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음



자료: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계 및 동향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7에서 재인용

-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원이 존재하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변화만이 군대와 국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당·군·정의 유기적 관계에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가 중국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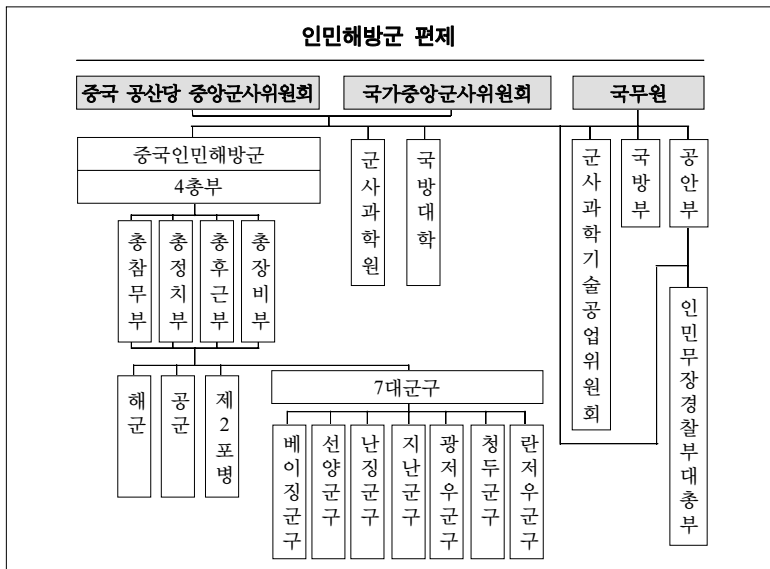
9) 기타 조직

- 이 밖에도 당 중앙 직속기관인 관공청(辦公廳),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 대외연락부(對外聯絡部) 및 인민일보사(人民日報社), 광명일보사(光明日報社) 등이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를 맞추고 있음.

나. 군대조직

- 인민해방군은 1927년 8월 1일 난창(南昌)봉기를 겪으며 창설됐으며, 1928년 5월 ‘홍군(紅軍)’으로 변신한 군은 공산혁명을 집행하는 무장 세력으로 활약하며 중국 건국의 동력이 되었음.
- 시작부터 당의 군대였던 인민해방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조직 내 당원의 비율이 높음. 1949년 군인 네 명 중 한 명꼴인 26.6%가 당원이었으며 1987년 38%를 차지했음. 현재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 위원 204명 중 군인은 42명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군대는 육군·공군·해군 및 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아직도 건국·항일전쟁·한국전쟁·월남전을 이끌었던 군 원로의 자녀들(태자당)이 많이 포진되어 있음.

〈그림 4〉 중국 인민해방군 편제



자료: 신경진. ‘정치적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서울: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에서 재인용

인민해방군은 1927년 8월 1일 난창(南昌) 봉기를 겪으며 창설됐으며, 1928년 5월 ‘홍군(紅軍)’으로 변신한 군은 공산혁명을 집행하는 무장세력으로 활약하며 중국 건국의 동력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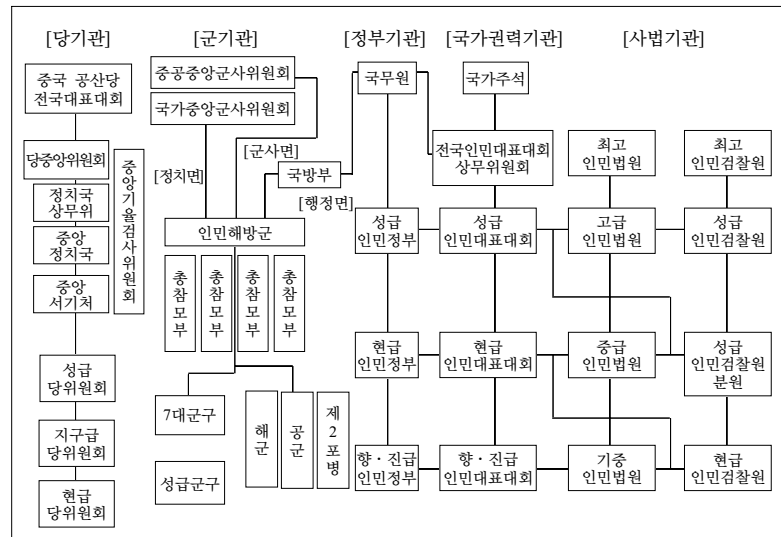
- 군의 편제 아래公安부와 인민무장경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와 사회치안에서의 군의 역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국가 내 중요한 권력의 한 부분임을 이해할 수 있음.

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를 정점으로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전체가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음

다. 국가조직

- 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를 정점으로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전체가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음.
- 전인대와 병렬적 위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國務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이 예측적 위치에 있음.

〈그림 5〉 중국 국가체제도



자료: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계 및 동향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8에서 재인용

- 중국은 당의 지도부가 군 기관과 입법·행정·사법·검찰의 정부 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군과 정부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이 군대와 정부를 이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접선거 방식을 통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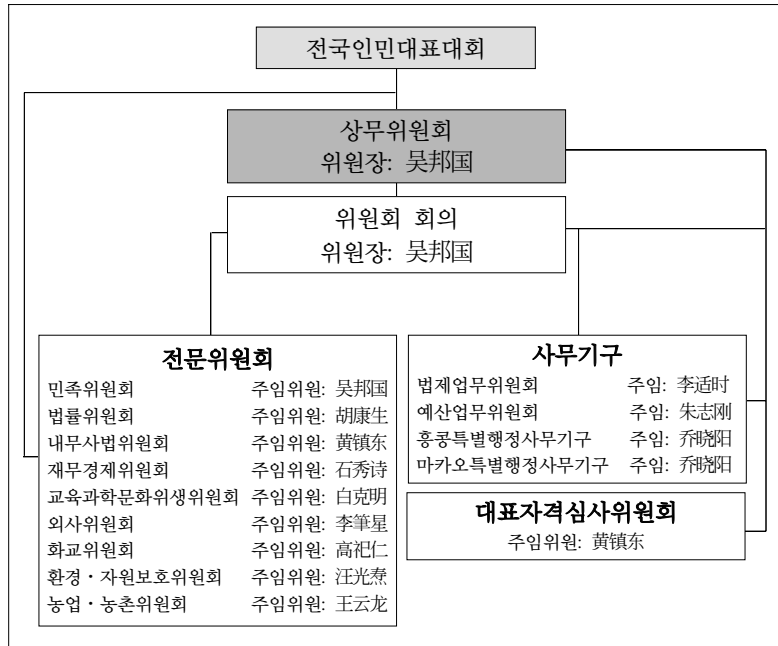
전인대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됨.

- 주요 기능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이 있고,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함. 또 국가주석의 제의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결정과 총리 제의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위원회 주임을 결정함.
- 이 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따라 그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함. 마지막 인사권으로는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을 선출함.
- 이 밖에 다른 국가의 의회와 같이 예산 심의 및 제반 경제계획의 심사·승인권으로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비준 기능이 있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비준 기능이 있음.
- 기타 행정에 관한 통제·조사권으로 성·자치구·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현재 홍콩, 마카오)의 설치 및 제도를 결정하고, 그 외에도 국가의 존립이 달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은 회의 개최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은 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현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5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기에 단지 5차례 열리게 됨.
-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5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가 정식으로 개막되기 전에 반드시 예비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예비회의의 임무는 주로 해당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을 토의함.
- 대회의 주석단과 비서장 및 기타 일부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예비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함. 만일 당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예비회의일 경우 전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이 있고,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함. 또 국가주석의
제의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결정과 총리
제의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위원회 주임을 결정함**

국무원은 내각에
해당하는 중앙정부로서
중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의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임

〈그림 6〉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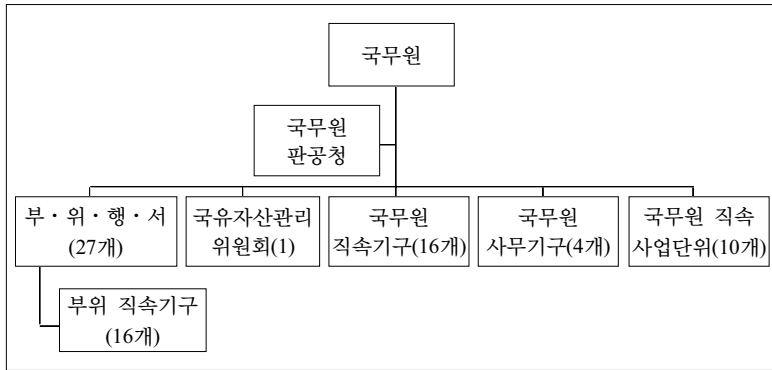


자료: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계 및 동향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10에서 재인용

2) 국무원(國務院)

- 중국의 중앙정부는 국무원이며, 국무원에는 우리의 국무조정실에 해당하는 국무원 판공청(1개), 각 부에 해당하는 부서(27개)와 그 소속으로 우리의 청에 해당하는 부(部)소속 직속기구(16개), 국무원 직속 특별기구인 국유자산관리위원회(1개), 국무원 직속기구(16개), 우리의 처에 해당하는 사무기구(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위(10개)로 구성되어 있음.
 - 국무원은 내각에 해당하는 중앙정부로서 중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임.
 - 국무원 간부의 임기는 5년이며, 총리·부총리·국무위원 4명·각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국무원은 일주일에 두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그림 7〉 국무원 조직도



자료: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계 및 동향분석(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12에서 재인용

- 주요 권한으로는 ① 헌법·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구성·행정법규의 제정·결의와 명령을 공포, ②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 ③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 ④ 국가경제, 사회개발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각 부처의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칙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 기관의 부적당한 명령·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⑤ 성 자치구·직할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구에 대한 계엄 결정 등을 들 수 있음.
- 국무원 회의는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전체회의가 있고,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으로 구성되는 비공개회의인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음. 이 중에서 총리가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주재함.
 - 현재 국무원 총리는 원자바오이며, 2012년 은퇴할 예정임.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국무원 총리는 일반적으로 부총리를 수행했던 사람이 총리로 승격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주자는 리커창 부총리임.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분야별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외교 관련해서는 다이빙궈가 국무원 내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처의 부장(장관)을 역임하고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국 국무원 수직체계를 보면 부(部) 밑에 우리의 실(室)·국(局)에 해당하는 사(司)와 국(局)이 있으며, 우리의 과(課)에 해당하는 것은 처(處)임. 일반적으로 청(廳)에 해당하는 직속기구들은 한 단계 낮은

현재 국무원 총리는 원자바오이며, 2012년 은퇴할 예정임.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국무원 총리는 일반적으로 부총리를 수행했던 사람이 총리로 승격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주자는 리커창 부총리임.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분야별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음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구는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중앙서기처라고
할 수 있음**

직급의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담당함.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政協)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는 1949년 9월 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으며,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제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됨.
 -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 주석·부주석·비서장·상무위원을 선출하며, 국정(國政) 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여 제안 및 비판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함. 또 정협 규약을 개정·결의 채택하고 상무위원회에 사업 보고할 것을 심의함. 정협 전국위원의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은 5년임.

4) 국가중앙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

-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무장력의 최고 영도기관이자, 국가기구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써 전국의 군을 지휘하며 ‘주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주석을 비롯한 위원회의 임기는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음.

5) 최고인민법원

- 전인대의 직속기관이자 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함. 최고 인민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 번 연임이 가능함.

6) 최고인민검찰원

- 전인대의 직속기관으로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함. 최고 인민검찰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 번 연임이 가능함.

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와 의사결정 방법

-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구는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중앙서기처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공산당 당헌(章程)에 따르면 5년마다 소집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표하지만, 실제로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가 전국대표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거의 모든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하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중앙정치국과 중앙서기처 및 중앙군사위원회임.

2. 중국 역대 지도자와 새 지도자의 관계

가. 중국 지도자별 주장과 변화

- 올해 말 18대 공산당 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자 그룹은 이미 이룩된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초에서 중국의 내부문제와 국제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
- 기존 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이미 덩샤오핑에 의해 낙점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지도자 그룹은 장쩌민 그룹과 후진타오 그룹에 의해 동시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음.

〈그림 8〉 역대 지도자들의 정책

제1세대: 마오쩌둥(1949~1976) - 혁명/건국(정풍 → 문화대약진 → 홍위병 → 문화 대혁명)
제2세대: 덩샤오핑(1979~1992) - 탈문화 혁명/개혁개방(천안문사건 → 고도성장 발판)
제3세대: 장쩌민(1992~2002) - 시장 경제화/WTO가입(3개 대표론)
제4세대: 후진타오(2002~) - 균형 발전/조화로운 사회(과학적 발전관)

〈그림 9〉 역대 지도자들의 정치지도 방침

중국공산당 세대별 노선 변화	
제1세대 마오쩌둥 시기 1949-1976 超英赶美 초영간미 영국을 초월해 미국을 잡는다 >중공립 후진주의 >급진적 경제개발	제2세대 덩샤오핑 시기 1978-1992 三個有利 3개유리 생산력·국력·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하면 좋은 것 >성장 후진주의 >불균형 성장 용인
제3세대 장쩌민 시기 1992-2002 三個代表 3개대표 당이 선진 생산력·선진 문화·인민의 이익을 대변 >자산계급 포용 >민영·사영 기업의 자유성 확대	제4세대 후진타오 시기 2002- 科學發展觀 과학발전관 합리적인 성장 추진 >환경·자주기술 중시 >균형성장·인본주의·지속 가능 성장 주장

올해 말 18대 공산당 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자 그룹은 이미 이룩된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초에서 중국의 내부문제와 국제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1966~1976년)으로
인해 10년의 공백을
거치고 대학에 입학한
'77·78학번' 세대를
중국의 엘리트라고
지칭함. 30년이 지난
지금 엘리트 집단인
'77·78학번' 대다수는
중국의 정치·교육·
예술·상계에 입문해
고위직에 종사하고
있음

- 지도자 그룹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정치적 비호를 받으며 동시에 상대방 그룹으로부터 반감이 없어야 하며, 중국 인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나. 주목해야 할 중국의 엘리트 77, 78, 79학번 세대

-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1966~1976년)으로 인해 10년의 공백을 거치고 대학에 입학한 '77·78학번' 세대를 중국의 엘리트라고 지칭함.
 - 1977년 겨울, 중국이 10년간 대입시험을 중지한 이래 첫 대학입학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졌고, 570만 명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 참가하여 합격자는 전체 수험생의 4.7%로 27만 3,000명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77학번 학생들을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생각하고 있음(77, 78, 79학번 차례로 입학이 조금씩 쉬웠다고 함).
 - 30년이 지난 지금 엘리트 집단인 '77·78학번' 대다수는 중국의 정치·교육·예술·상계에 입문해 고위직에 종사하고 있음.
 - 18대에는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에 참여하다 하방(下放) 되었던, 문혁기간 농병공대학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거나 혹은 문혁을 겪고 77, 78, 79년에 대학에 들어와 사회에서의 고생과 대학에서의 공부를 모두 경험해 본 지도자 후보들이 특별히 많음.

다. 후진타오 시대의 특징

- 지난 2002년 11월의 중국 공산당 제16차 당 대회에서 예상대로 장쩌민 총서기와 제3세대 지도부가 전원 퇴진하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가 당 지도부 전면에 등장했음.
 - 또한 2003년 3월 제10기 전체인민대표대회에서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장쩌민 국가 주석이 임기만료로 퇴진하고, 1998년 이후 국가 부주석을 역임하고 있던 '준비된 국가 주석 후보' 후진타오 총서기 겸 국가 부주석이 정식으로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2004년 9월에 개최된 16기 4중전회에서 장쩌민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마지막 공직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고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후진타오 체제로 재개편함으로써 후진타오 총서기는 마침내 '공산당 총서기·국가 주석·군사위원회 주석'의 3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음.
 - 후진타오의 등장으로 중국은 조화로운 세계와 과학적 발전관을 기초로 중국의 대내외적 변화를 표방하였으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

과 ‘시장경제 중시’의 방향에서 선회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주의 복지사회인 ‘조화로운 사회’에 더욱 초점을 둬.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 보다는 복지와 도농과 빈부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둬.

- 장쩌민 세력과 후진타오 세력의 보이지 않는 대립은 결국 중국의 부정부패 사건을 두고 세력 간 견제 및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함. 그러나 정책을 사이에 둔 경쟁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들의 대립일 수는 있으나 집단 세력들의 전체적 이익 때문에 나오는 경쟁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음. 즉, ‘진보와 보수’ 혹은 ‘이데올로기 고수와 경제 발전’ 등의 복합적 개념을 기초로 지도자 그룹 간의 당과 국가를 위한 경쟁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면에서 2012년 새 지도부의 출현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 청사진을 읽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장쩌민이 지지하던 더욱 발전된 개혁·개방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임.
- 계파 혹은 이익집단 간의 경쟁으로 보이는 지금의 중국 지도부 개편을 위한 움직임도 결국 변화하고 있는 공산당의 정책과 국내경제·민심 및 중국의 강대국을 포함한 대외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새 지도부의 정책에 따라 정치·경제적 진보(進歩) 혹은 개혁(改良) 혹은 보수(保守)의 길이 선택될 것으로 보임.

후진타오의 등장으로 중국은 조화로운 세계와 과학적 발전관을 기초로 중국의 대내외적 변화를 표방하였으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과 ‘시장경제 중시’의 방향에서 선회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주의 복지사회인 ‘조화로운 사회’에 더욱 초점을 둬.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보다는 복지와 도농과 빈부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둬

라. 15, 16, 17대 공산당 지도자 그룹

〈그림 10〉 15, 16, 17기 공산당 지도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15기	16기	17기
장쩌민(江泽民, 76, 당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1942.7, 당총서기, 국가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1942.7, 당총서기, 국가 주석)
리 펑(李鹏, 74, 전인대 상무위원장)	오방궈(吳邦國, 1941.7, 전인대 상무위원장)	오방궈(吳邦國, 1941.7,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74,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1942.9, 국무원총리)	원자바오(溫家寶, 1942.9, 국무원 총리)
리루이훤(李瑞環, 68, 정협주석)	자칭린(賈慶林, 1940.3, 정협 전국위 주석)	자칭린(賈慶林, 1940.3, 정협 전국위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60, 국가 부주석)	쑹칭홍(曾慶紅, 1939.7, 국가 부주석)	리창춘(李長春, 1944.2, 상무위원, 언론사상담당, 상해방)
웨이젠싱(尉健行, 71,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황 쭉(黃菊, 1938.9, 국무원 부총리)	시진핑(習近平, 1953.6,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태자당)
리린칭(李嵐清, 70, 국무원 부총리)	우관정(吳官正, 1938.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커창(李克強, 1955.7, 상무위원, 전 요령성 서기, 공청단)
	리창춘(李長春, 1944.2, 이데올로기 담당)	허궈강(賀國強, 1943.10, 상무위원, 중앙기율위 서기, 태자당)
	뤄 간(羅幹, 1935.7,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용강(周永康, 1942.12,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부서기, 상해방)

* 2007년 11월 기준

2012년 새 지도부의
출현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 청사진을 읽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

- 15, 16, 17대 공산당 지도자 그룹의 변화를 보면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넘어오며, 다시 18대로 이어지는 중국 정치핵심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

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유력 지도자 그룹과 예상

〈표 1〉 18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선출 유력 지도자 1

성명	현직(주요겸직)	출생연도	본적	학력	비고 (전직, 경력)
시진핑 (習近平)	-국가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53	산시 푸핑 (陝西富平, 북경출생)	-칭화대학 공정화학부 -칭화대학 인문사회학원 법학박사	-푸젠성 성장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16대 중앙위원
리커창 (李克強)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55	안후이 당위안 (安徽定遠)	-베이징대학 법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박사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허난성 성장, 당위원회 서기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 -15~16대 중앙위원 -8대 전인대 상무위원
리위안차오 (李源朝)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중앙정치국 위원	1950	장쑤 쉰수이 (江蘇盱眙)	-푸단대학 수학과 -베이징대학 경제경영 센터 석사 -중앙당교 법학박사	-공청단 상하이시 서기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문화부 부부장 -장쑤성 당위원회 서기 -16대 중앙후보위원
위안춘칭 (袁純淸)	-산시성 당위원회 서기 -중앙위원	1952	후난 한서우 (湖南漢壽)	-베이징대학 법학과 -중국정법대 법학석사 -후난대학 경영학박사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산시성 성장, 당위원회 부서기
저우샤오촨 (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 -중앙위원	1948	장쑤 이싱 (江蘇宜興)	-칭화대학 공학박사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중국건설은행장 -16대 중앙위원

성명	현직(주요겸직)	출생연도	본적	학력	비고(전직, 경력)
류평 (劉鵬)	-국가체육총국 국장 -중앙위원	1951	충칭 (重慶)	-충칭대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청단 쓰촨성 서기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부장 -쓰촨성 당위원회 부서기 -16대 중앙후보 위원
왕치산 (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국 위원	1948	산시 톈진 (山西 天鎮)	-시베이대 역사학과	-중국건설은행장 -광둥성 부성장 -하이난성 당위원회 서기 -베이징시 시장, 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 주석 -16대 중앙위원
장더지양 (張德江)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국 위원	1946	랴오닝 타이안 (遼寧 台安)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지린성 당위원회 서기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류연동 (劉延東)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올림픽조직위원회 부주석	1945	장쑤 난통 (江蘇 南通)	-법학박사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통전부 부장 -10대 전국정협 주석 -16대 중앙위원
류윈산 (劉云山)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1947	산시 신저우 (山西 忻州)	-중앙당교	-공청단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맹젠주 (孟建柱)	-공안부 부장 -중앙위원	1947	장쑤 쑤조우 (江蘇 蘇州)	-상하이 기계 학원 시스템 공정학과 공학석사	-상하이시 당위원회 부서기 -장시성 당위원회 서기 -16대 당중앙위원

**중국 정치 지도자의
선발과정은 형적인
관계(關係)인 집단
이익·개인 직위에 따른
평면구조와 종적인
관계인 신분·가족배경과
직책이 서로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상하·좌우관계에서의
다면적 입체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지도자 그룹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중국
전통에서 출발한
인품(人品)으로
사람을 보며 등용하는
'화합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인
중국사회의 전통적
관습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음**

성명	현직(주요경력)	출생연도	본적	학력	비고(진직, 경력)
왕양 (汪洋)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1955	안후이 쑤저어우 (安徽 宿州)	-중앙당교	-공청단 안후이성 부서기 -안후이성 부성장 -국가발전계획 위원회 부주임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16대 중앙후보위원
보시 라이 (薄熙來)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1949	산시 딩샹 (山西 定襄)	-베이징대 역사학과 -문학석사	-랴오닝성 성장 -상무부 부장 -16대 중앙위원
위정성 (俞正聲)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1945	저장 사오싱 (浙江 紹興)	-하얼빈 군사공정 학원 유도단 공정학과	-건설부 부장 -후베이성 당위원회 서기 -16대 중앙정치국 위원
장 가오리 (張高麗)	-톈진시당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1946	푸젠 진장 (福建 晉江)	-샤먼대 경제학과	-광둥성 부성장 -선전시 당위원회 서기 -산둥성 당위원회 서기, 성장 -16대 중앙위원

자료: 중국의 '제5-6세대' 지도부 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신종호·김흥규·황재호)에서 pp.54~56 재정리

- 충칭(重慶) 사건으로 인하여 보시라이(薄熙來)는 이미 낙마한 상태이고, 이와 연계되어 일부 지도자 예비후보들이 더 낙마할 가능성도 높음. 즉, 그룹 리더들의 지지가 없는 경우 조그마한 하자도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중국 정치 지도자의 선발과정은 횡적인 관계(關係)인 집단 이익·개인 직위에 따른 평면구조와 종적인 관계인 신분·가족배경과 직책이 서로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상하·좌우관계에서의 다면적 입체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지도자 그룹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중국 전통에서 출발한 인품(人品)으로 사람을 보며 등용하는 '화합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인 중국사회의 전통적 관습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음.

〈표 2〉 18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선출 유력 지도자 2

현재의 지도자(주석, 총리)					
성명	연령	출생	본적	계보	관계
후진타오 (胡锦涛)	70	1942년 12월	안후이 지시 (安徽绩溪)	공청단	덩샤오핑
원자바오 (温家宝)	70	1942년 9월	톈진 (天津)		
18대 중앙상무위원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					
시진핑 (习近平)	59	1953년 6월	산시 푸핑 (陕西富平)	태자당	장쩌민
리커창 (李克强)	57	1955년 7월	안후이 덩위안 (安徽定远)	공청단	후진타오
왕치산 (王岐山)	64	1948년 7월	산시 톈전 (山西天镇)	태자당	장쩌민
리위안차오 (李源潮)	62	1950년 11월	장쑤 쉰수이 (江苏涟水)	공청단	후진타오
장더지앙 (张德江)	66	1946년 11월	랴오닝 타이안 (辽宁台安)	상해방	장쩌민
류윈산 (刘云山)	65	1947년 7월	산시 신저우 (山西忻州)		장쩌민
왕양 (汪洋)	57	1955년 3월	안후이 쑤저어우 (安徽宿州)		후진타오
류옌둥 (刘延东)(女)	67	1945년 1월	장쑤 난퉁 (江苏南通)		후진타오
위정성 (俞正声)	67	1945년 4월	저장 사오싱 (浙江绍兴人)	태자당	장쩌민
18대 중앙상무위원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					
장가오리 (张高丽)	66	1946년 11월	푸젠 진장 (福建晋江)	상해방	장쩌민
링지화 (令计划)	56	1956년 10월	산시 핑루 (山西平陆)	공청단	
보시라이 (薄熙来)	63	1949년 7월	산시 덩상 (山西定襄)	태자당	

자료: 홍콩과 대만 자료 재정리

- 홍콩과 중국의 자료는 충칭 사건 이전에도 보시라이(薄熙來)를 가능성 있는 후보군 중에서도 비중을 낮게 보고 있었음.

제5세대 지도자들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경험, 현장과
학교학습을 모두
겪었던 배경과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 및
국력신장을 경험한
엘리트들로서
중국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바.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지도자 그룹

-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제5세대 지도자(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등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책 결정 구조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졌음.
 - 또한 시진핑과 리커창은 가장 강력한 차기 지도자로서 현재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의 제5세대의 정책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구성되는 지도자 그룹의 세력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그러나 제5세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다원화·제대화·전문화로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또한 과거 전통으로 봤을 때 이들은 후진타오가 현실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급격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
 -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할 경우 한 개인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도자들을 각자의 역할배분에 따라 권력을 분점(分占)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할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대외정책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제5세대 젊은 지도자 중 일부는 대외경제협력의 경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대외정책 및 군사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외 및 군사정책은 보다 전문화된 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제5세대 지도자들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경험, 현장과 학교학습을 모두 겪었던 배경과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 및 국력신장을 경험한 엘리트들로서 중국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지, 군사적 마찰에 대한 대처능력,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대응능력 및 중국사회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안정유지능력 등이 이들의 지도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이지영(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김진호

現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단국대학교 학사, 홍콩주해대학 석사,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방문학자, 홍콩주해대학 방문 교수 역임.
북경대학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산대학 한반도연구소 객원연구원,
요동대학 조선반도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홍콩 아주주간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 중. 주 연구영역은 동북아국제관계, 양안관계, 동아시아 정치문화, 중국
정치경제임. (erickim@dankook.ac.kr)

참고문헌

- 신종호·김홍규·황재호, “중국의 ‘제5-6세대’ 지도부 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21, 2010년.
이재호, “중국의 정부체제 및 동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1년.
주장환, “중국 세대별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세대에서 제5세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 2012년.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2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31 May - 2 June, 2012
Haevichi Hotel & Resort Jeju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난 2012년 5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트렌드: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의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위기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무르백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키팅 호주 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전 세계 33개국에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학계·경제계·문화계·여성계·IT 업계를 대표하는 스티브 워즈니악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2001년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극복하고 연례회의의 토대를 구축한 **오늘의 제주포럼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공로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전환기로서 성장단계에 있는 제주포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적절한 의제선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당면한 재정 위기가 단순히 유럽의 위기로만 치부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말에 개최되는 제8회 제주포럼에는 이러한 세계사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 제8회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주최: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T. +82 (0)64 735 6531 | F. +82 (0)64 738 6539 | E-mail. jejuforum@jpi.or.kr
www.jejuforum.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